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까?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1-4

문제는 이 말씀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철학에서 매우 중요

그리스어 로고스의 의미는 단순

말, 단어, 대화, 추론

문제는 이 단순한 단어를 철학자들이 복잡하게 사용

헤라클리토스 사물이나 지식의 원리

“이 로고스는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나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

모든 것은 이 로고스에 합당하게 작용한다. …”

소피스트들 단순한 대화

아리스토텔레스 합리적 대화

스토아학과 우주생성 원리 logos spermatikos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철학자들에 대한 적대감



히파티아 사건

415년 최초의 여성 수학자이자
철학자, 천문학자인 히파티아가
성 키릴로스의 사주에 의해
신자들에 의해서 학살

테르툴리아노, 이단에 대한 처방 7장

“세속의 지혜로 귀를 간지럽히는 인간과 악마의 가르침이 있다.

사실 아테네가 예루살렘에 무엇을 해주거나 한단 말인가?

아카데미아와 교회 사이에 통하는 것이라도 있는가?

우리의 가르침은 솔로몬의 주랑에서 오는 것이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다.”

질문: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그리스철학의 개념인가?

즉 요한복음의 1장(로고스 찬가)의 족보는 무엇인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1-3, 14

요한복음 로고스의 세가지 주제

1. 하나님과 로고스의 태초성
2. 창조의 원리로서의 로고스
3. 육화 incarnation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나도록 했을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탈유대화

그리고 바르 코흐바 반란 이후의 탈 팔레스타인화



60만명에 가까운 유대인 학살과 팔레스타인
에서 완전한 추방 이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교도 세상에서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재해석
하고 그리스적 사유에 적응할 필요성이 생김.



“복음 저자는 더 깊이있는 신학이 필요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이에 이르는 길에 관심을 갖고 이전 자신의 종교적 관심과 경험에 지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교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된 비그리스도교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C.H. Dodd

요한복음이 직면했던 딜레마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익숙한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오해를 무릅쓸 것인가,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이해를 희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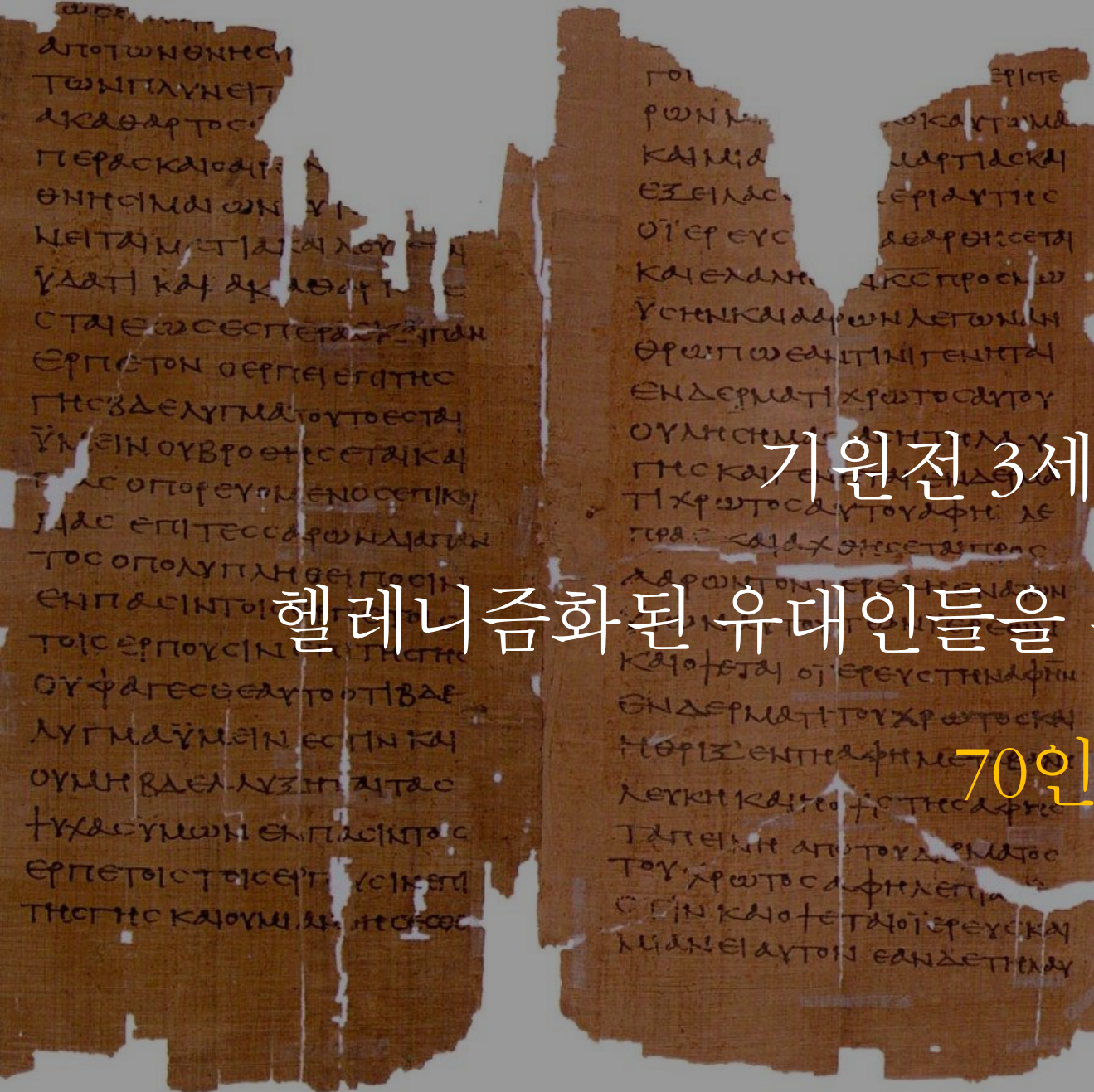
가톨릭이 일본과 중국에 들어올 때의 딜레마와 동일
천주와 상제와 같은 익숙한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데우스라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난제는
번역과 소통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과연 그것으로 다일까?

번역과 소통의 문제로 해결될까?



기원전 3세기-2세기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 그리스어 번역

70인역

MS 2649
Bible: Leviticus. Egypt, late 2nd c.
The oldest MS of this part of the Bible

지혜와 성령, 말씀이 각각 소피아, 프네우마, 로고스로 번역

동시에 일종의 신학화가 이루어짐

번역은 단순한 등가교환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

알렉산드리아의 필론(B.C. 15/10-A.D. 45/50)

헬레니즘화된 유대교의 상징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의 접목

“왜 하느님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어떤 필멸의 존재도

지고하신 천상의 아버지의 모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두번째 신성, 즉 지고하신 분의 **로고스**의 형태를
떨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Philo of Alexandria, *Questions and Answers on Genesis*, II-62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70인역 성경을 참조하여
로고스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그리스 철학에서 끌어들이м.
초월적인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로고스라는 매개 설정
이는 스토아학파의 우주생성 원리 logos spermatikos 차용

질문: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그리스철학의 개념이네?

엄밀히 말하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로고스와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이의 유사성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던 것으로 묘사

둘째, 로고스가 창조의 원리로 묘사

한처음 *en arke*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1-3

분명한 것은 헬레니즘화된 유대교의 흔적이

요한복음의 로고스에서 확인된다.

명칭 뿐만 아니라 신학화된 의미까지.



“필론은 언어를 이상화시켰다.
그에게 이상적 언어는 하느님 자신과
함께 이미 존재한 것이다. 그렇기에 필
론은 언어에게 신성을 부여하였다.”

Maren Niehoff

참고로 마렌 니호프는 필론을 일반적인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성경과 철학을 접목한 유대적인 **중기 플라톤주의**로 분류하였다.

이건 사실 전혀 몰라도 된다.

니호프는 **필론과 요한복음 1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주요 학자 중의 하나이다.

중간 정리:

요한복음의 로고스의 족보를

1. 유대교 내부-헬레니즘화된 유대교-에서 찾을 것인가
2. 아니면 유대교 바깥, 즉 그리스 철학에서 찾을 것인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1:3)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1:5)

로고스의 창조와 계시의 역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상당한 신학화/철학화된 개념

그리고 이러한 창조하는 로고스와 계시하는 로고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로고스와 매우 유사하다.

즉 헬레니즘화된 유대교의 맥락 안에서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질문: 그래도 요한복음의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고 보는 **별종**도 있지 않을까?



트뢰스 앙베르그-페더센

Troels Engberg-Pedersen

“요한복음 서문뿐만 아니라

전체 복음이 **스토아 철학**의 영감에

물든 것이다.”

이 별종은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플라톤주의-필론의 이쪽 계열-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차이

일단 플라톤주의는 이데아와 물질을 철저히 구분함.

필론도 마찬가지. 로고스가 그 중간 역할./이원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은 질료 안에서 작용함./복합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관념(영)과 물질(육)의 이분법의 플라톤보다는
물질의 원인이 되는 형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적합

즉 로고스는 세상의 존재의 원리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원인(작용인)에 해당한다.

질문: 육화incarnation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바로 요한복음의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이나 필론과 같은 헬레니즘화된 유대교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스 철학(헬레니즘 포함)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관념이 없다.

만약 신이 인간이 된다면 이는 일종의 변장같은 것이지

문자 그대로 필멸자인 인간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 이유로 가현설같은 해괴한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신의 불멸성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뿌리깊은 믿음이

육화의 신비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된다.

“케린토스는 이집트의 지혜 속에서 자란 이로 세상은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가르쳤다. 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 그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에게 내렸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를 떠나면서 그는 고통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에 절대 죽지 않는다.**” - 이레네오스, 이단에 대하여, I-26.1.

정리:

1. 요한복음의 서론(**로고스**)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다.
2. 이는 다른 문화권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문제이다.
3.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확실히 고도로 **신학화된 개념**인 것은 맞다.
4. 허나 로고스를 그리스 철학의 틀로 설명하면 **육화**가 설명안된다.
5. 따라서 로고스는 그리스인을 위한 그리스인의 언어의 차용에서 비롯한 **문화적인 뒤섞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